

전남 돌김 '햇바디1호' 품종보호권 획득

전남해양수산과학원, 8년 만에 5번째 김 품종등록... 20년 보호 기존 곱창김 보다 생산량 많아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기존 잇바디돌 김보다 채취 횟수와 생산량이 많은 '햇바디1호'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6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햇바디1호' 품종등록은 2016년 연구사업

착수 후 8년 만에 성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이 결정됐다. 향후 20년간 품종보호권을 받는다.

일명 곱창김으로 불리는 '잇바디돌김'은 우리나라 토종 김으로 맛과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좋아하는 품종이다. 전남지역에서 10월부터 3개월만 생산되는 품종이다.

그동안 잇바디돌김 양식은 씨앗(각포

자) 형성률이 낮고 김발에 씨앗을 붙이기 어려워 생산량이 일정치 않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양식업인의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품종보호권이 결정된 '햇바디1호'는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씨앗 주머니(각포자낭)에서 많은 씨앗을 방출한다.

많은 씨앗 방출로 김발 부착률이 높아 양식 기간 중 수확 횟수가 많아져 김 양식

여가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김 종자주권 확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5년 '해풍1호'를 시작으로 2017년 '해풍2호', 2018년 '신평1호', 2019년 '해풍2호'를 품종등록 했다. '햇바디1호' 품종등록은 다섯 번째다.

2011년부터 어가에 분양한 김 종자는 4만9642g에 달한다. 이는 물김 131만 8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해

전남 전체 김 시설량인 91만 책의 약 1.5배에 해당한다.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김 산업은 생산성과 고품질 위주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신품종 개발·보급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신품종 개발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민주 도당,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발대식

국민 서명운동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나주 혁신도시 한전KDN 사거리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신정훈 도당위원장과 김원이 의원, 박연환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편들며 흥

보대사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염수 방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산업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 위축을 불러와 수산업계를 꺾을 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사는 감시장비 설치와 정부 차원의 피해 대책 특별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이에 따른 일본 수산물 수입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5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전KDN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광주 송암산단 '모빌리티 허브센터' 공모 도전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위해

광주시가 노후산단인 송암산단을 모빌리티 복합허브센터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송하동 송암산단을 도시재생 혁신지구(4만3402㎡)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달 초 국토부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말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다.

송암산단은 1979년 6월 착공, 1983년 준공됐다. 당시 광주시는 도심지에 산재한 공해업체의 이주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생산도시화를 이루기 위해 송암산단을 조성했다. 총면적은 41만5496㎡이다. 현재는 차량 정비소·부품 등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주로 입주해 있다.

광주시는 노후화 한 송암산단을 문화·디지털 기반 모빌리티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분야의 파급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차 정비인력양성·에프터마켓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한 모빌리티 허브 조성, 같은 장소에 광주시 문화산업과 추진중인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와 연계한 교육·체험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연계형 주택 150호와 공원을 조성, 산단근로자들에게 주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광주시가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국토부로부터 2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여기에 시비 250억원·부처연계 360억원·도시공사 300억원 등을 보태 송암산단 혁신지구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낙후된 송암산단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초기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다음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기자

광주소방,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 보급

인명·재산피해 예방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등록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지난해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2월1일부터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광주소방본부는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신청·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2520대(법인 1040대·개인 1480대)를 선정했다. 이들 택시에는 차량용 소화기(1.5kg 분말약제) 1개와 홍보스티커 2매



를 각각 지원한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택시 안에 작은 119가 마련된다"며 "자율 설치로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전남도, 2조원대 우즈베키스탄 신재생에너지 교류

우즈벡 산업부, 태양광기업 방문 현지 전남 기업 지원 사무소 개설

전남도가 2조원대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협력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기업·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이 강진에 소재한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 SDPV를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논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산업부(MIIT)와 전자산업협회(Uzeltexsanoat)가 지난 'KOR-UZB 에너지워크' 행사를 통해 전남도와 업무협약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5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해 전남도가 주최한 'KOR-UZB 에너지워크' 행사

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남 에너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 내 전국에 총용량 4300MW(메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가동토록 대통령령이 발효됐다.

이에 각 주의 공공·개인 건물, 개인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통해 타슈켄트주와 호레즘주의 개인용 주택 등 융복합 사업 대상 50만 가구, 약 2조 원 규모의 보급사업 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최근엔 도내 한 기업이 3MW의 물량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 이 기업은

13MW 물량의 해외시장 개척길에 나설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관계자가 방문한 SDPV사는 강진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태양광 모듈 생산 기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공장을 설계 중이다.

약 200억원 규모의 현지 공장 설립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모듈을 생산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장은 우즈베키스탄 방문단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정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많이 발굴해 전남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며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전남 기업 지원 사무소를 개설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남도의병 구국 총훈' 전남도 선양사업

향토사학자 등 선양자문단 발족 이름 없는 의병·유물 발굴 나서

전남도가 알려지지 않은 의병을 찾고 송고한 뜻을 계승하기 위해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시·군 22곳 학예연구사, 향토사학자 등 44명으로 '남도의병 선양자문단'을 발족했다.

선양자문단은 알려지지 않은 의병장과

유적지 기초 조사, 문중이나 개인 소장 유물 발굴, 남도의병박물관 건립 홍보, 지역 내 전파 활동을 한다. 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 이후에도 이름 없는 의병 발굴과 선양사업 관련 의견 수렴 창구로 운영한다.

선양자문단에서 신규 조사한 내용은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시 반영할 콘텐츠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재명 전남도문화자원과장은 "전남지역 의병장과 유물을 찾기 위해 많은 용역과 연구 등을 추진했다"며 "남도의병 선양자문단을 활용한 무명 의병·유물 발굴 등을 통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와 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에 오는 2025년 6월1일 '의병의 날' 개관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440억원을 들여 의병의 구국 총훈을 기리고 의병 정신 계승을 위한 전시·교육 공간으로 조성한다.

최황지 기자